예수님의 인성

오늘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 : 1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요한일서 4 : 2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요한일서 4 : 3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앞으로 2 주간 저는 예수님의인성과 신성에 대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왜 중요합니까?
중보자로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속성을 가진 하나님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줄 수 없읍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인간을 위한 구원자가 될 수 없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면, 우리의 구원은 무너집니다.

I. 먼저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난 가문의 족보가 있으며, 태어난 곳이 있으며, 어린 아이로부터 자랐습니다. 또 배고픔을 느끼셨고, 피로하셨으며, 곤하여 주무셔야 했으며, 인간의 희로애락의 감정을 가지셨읍니다.

먼저 가문의 족보는,
마태복음 1 : 16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태 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모두 남자인 아버지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낳고 합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서, 요셉에게 와서는 전대를 따라 '요셉은 예수를 낳았으니' 하지 않고,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고만 합니다.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3:15 에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이 성취된 사실을 보여 줍니다.

예수님은 다윗왕의 후손인 요셉의 족보에 속해 있지만, 요셉의 씨로 태어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태어난 분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태어난 곳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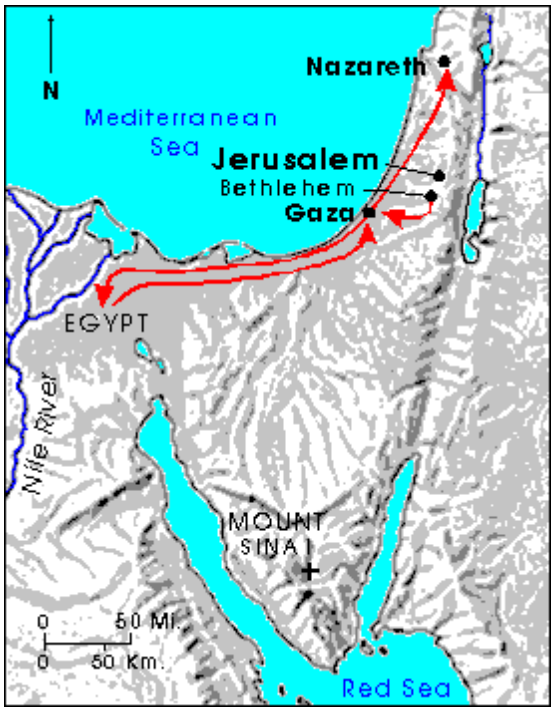
마태복음 2 : 4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뇨 물으니

마태복음 2 : 5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바

마태복음 2 : 6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으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것을 보여 준다.

어린 아이로부터 자랐다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 2 : 52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배고픔을 느끼셨고,

마태복음 21 : 18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마태복음 21 : 19 길 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 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마태복음 21 : 20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피로하셨으며,

요한복음 4 : 6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육시쯤 되었더라

주무셔야 했으며,

마태복음 8 : 24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희로애락의 감정을 가지셨습니다.

요한복음 11 : 33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요한복음 11 : 34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요한복음 11 : 35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II.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것은 죄가 없이 태어나셨다는 것이 다릅니다.

창 3:15 의 예언에 따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입니다.

창세기 3 : 15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구절에서 여자의 후손은 에수님을 말합니다.

너는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한다는 말은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밖을 것이나 하는 말이고,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것이요

하신 말씀은 부활하셔서 사탄의 능력을 짓밟으시겠다는 말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모두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망의 세력을 짓밟고 부활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이 태어 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에 따라 예수님은 남녀의 관계에 의해 태어난 것이 아닌 성령에 의해 동정녀 출생을 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1 : 18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은 남자의 씨를 받아 태어나지 않고 성령의 기적에 의해 동정녀 탄생을 했기 때문에 원죄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죄가 없습니다.

III. 그럴 뿐만 아니라 자범죄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8 : 46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매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은 율법 아래 나셨지만, 이 세상에 사실 때 한 번도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적이 없으십니다. 아담은 죄없이 창조되었지만,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지만 에수님은 모세의 율법 아래 태어나 한번도 그 율법을 범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아담은 죽었고 에수님은 신성의 능력으로 부활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IV.에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성정을 가지셨읍니다.

히브리서 4 : 15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구절에서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 우리와 똑같이 연약함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죄로 인해 시험을 받았다는 말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죽음의 고통 앞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것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분입니다.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 가실 때 힘에 지쳐 쓸어지시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가신 분입니다.
인류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진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죽음의 길을 가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점을 가지시고 시험을 경험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인성으로 인해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가지셨지만,
우리를 위해 당신의 연약함을 극복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만약 우리 주님께서 Super-Man 으로 오시어 매일 우리를 쥐 밖으시며,
"에이 못난 놈, 그것도 못하냐? 너는 할 수 있는게 뭐야! 날 좀 봐라, 날 좀. 에이 못난 놈!, 쯧쯧"
하시면서 매일 쥐밖기만 하시면
존경하긴 해도 사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당신을 희생하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으로 오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우리도 희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은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가지시고 그것을 기도로 극복하셨읍니다.
그리고 우리도 기도하면 된다고 하시며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우리는 은혜의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 나아 갑니다.
높고 높으신 주님이 나를 위해 낮고 낮은 인간이 되신 것을 믿기 때문에
히브리서 4 : 16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아멘!

찬바람은 옷을 조이게 만들어도 뜨거운 사랑은 옷을 벗게 만드는 것입니다.
북녘 바람과 태양이 누가 더 센 가로 말싸움을 벌렸읍니다. 그래서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쪽을 승자로 하는데 의견을 같이 했읍니다.
바람차례가 먼저였읍니다. 그러나 심한 돌풍은 나그네로 하여금 옷을 바짝 조여 입게 만들 뿐이었읍니다. 북녘바람이 더욱 세게 불자 추위로 인하여 나그네는 가외로 와투까지 걸쳤읍니다.
마침내 바람은 싫증이 나서 차례를 태양에게로 돌렸읍니다.
처음엔 그저 따뜻할 정도로만 햇볕을 주어 나그네는 와투를 벗었읍니다. 이어서 아주 뜨겁게 햇빛을 주니 더위를 이기지 못한 나그네는 옷을 벗었고 근처의 강으로 목욕을 하러 갔읍니다.

찬바람은 옷을 조이게 만들어도 뜨거운 태양은 입은 옷을 벗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율법의 찬바람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사랑의 원자탄으로 오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율법으로 꾸짖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은혜로 격려하러 오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초인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나와 같은 연약한 인간이 되어서 풍성한 희생의 은혜를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V.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계셨다고 하는 것이 교리적으로 왜 중요합니까? 여기에는 중요한 두가지 의미가 있읍니다.
그 첫째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실제적으로 오셨음을 부인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체가 죽으신 역사적 사실이 없어집니다. 부활도 없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은 헛 것이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 교회에 영지주의 이단이 들어 왔습니다.
이 영지주의 이단은 영은 깨끗하지만 육은 더럽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거룩하신 분이 육체를 입고 오실 수 없다고 주장했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는 없고 영으로만 오신 분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영지주의적 이단에 대하여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4 : 2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요한일서 4 : 3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구속 사역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마귀의 교묘한 속임수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 가신 것이 실제적 사건이 때문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박힌 것은 실제로 발생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옛사람으로 지금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새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2. 두번째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역사적으로 십자가에서 실제로 돌아가셨음으로 인해 '인간에 대한 구속 사역'이 완성된 것입니다.
AD 4 세기 말, 기독론의 논쟁이 활발할 때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읍니다.
"그리스도께서 취하시지 않은 것은 회복될 수 없다.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된 것 뿐이다"-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
이 말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잘못된 주장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분수령이 될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됨으로써, 인류를 자기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합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인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신성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인성을 완전한 형태로 소유하였읍니다.
예수님은 50% 하나님이고 50% 인간이 아닌 100% 하나님이고 100% 사람이십니다. 두 위격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이 둘은 서로 융합되어 일체를 이룸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고, 사람이 하나님이 되었읍니다. 이와같이 신인은 이중적이지만, 둘이 아니라 둘로부터 온 하나입니다. 100% 하나님이고, 100% 인간이십니다.
이와같이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 되심으로 인해,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으로 인해

구원받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신성에 참여할 수 있게 하셨읍니다.

요한사도는 이렇게 담대하게 외칩니다.

요한일서 5 : 5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요한일서 5 : 4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공부를 하신 분은 꼭 공부를 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web-page 로 가셔서

공부를 하신 타이틀의

Like Button 이나 Follow Button 을 눌러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선교에 도움이 됩니다.

- 만약 Like button 이나 Follow Button 을 누르지 않으셨으면
  다음 공부로 가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Eg. 만약 예수님의 인성을 공부하셨으면

인터넷 부라우저의 좌측 상단으로 가셔서

를 누르시면 예수님에 대하여 web-page 로 돌아 갑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의 인성을 설명한 내용 하단에

Like Button 이 있습니다.

모든 타이틀마다 다 Like Button 이 있습니다.